



등록금 1천만원 시대... 학자금 마련 전략

### 60나노급 1기가 D 램 삼성전자 첫 양산 착수



삼성전자는 1일 세계 최초로 60나노급 공정을 적용한 1기가 DDR2 D램(사진) 양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작년 3월 80나노 공정을 적용한 512Mb D램을 양산, 80나노 D램 시

대를 개막한 바 있으며 1년도 안돼 역시 세계 최초로 80나노보다 2세대 앞선 60나노급 1기가 D램 양산을 실현한 것이다. 60나노급 공정은 기존 80나노 공정과 대비해 40% 이상, 현재 D램 업계의 주력 양산공정인 90나노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생산성이 높아 원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특히 이번 60나노 D램 세계 최초 양산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향후 50나노, 40나노급 제품 개발과 양산에 있어서도 삼성이 지속속도로 업계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기술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RCAT(Recess Channel Array Tr) 기술인데, 이는 2003년 6월 반도체 학회인 VLSI 학회에서 최우승 논문으로 선정된 삼성전자의 독자기술이다. 이 기술은 D램 셀(Cell)의 트랜지스터를 3차원 방식으로 제작, 면적을 최소화해 집적도를 높인 기술로 50 나노급 이하에서는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핵심기술이다. /연합뉴스

## 출생때부터 일정금액 자녀몫으로 적립

### 어린이 전용 펀드·장기주택마련 등 대학생인 경우 학자금 대출 받아라

특히 사립대의 경우 대부분의 학과에서 등록금이 연 800만원을 넘어섰으며 일부 대학 의예과의 경우 연 1천만원을 돌파하는 기록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결국 등록금과 교재비, 생활비, 영어학원과 같은 사교육비를 포함하면 대학생 1명이 1년에 써야하는 돈이 연 2천만원이 넘어간다는 결론이다.

물론 부모가 자산이 있어 교육비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주택대출 이자 갖고, 초·중·고교 때 자녀를 사교육비 대느라 허리가 휘고 있어 실제로 대학과 진학에 따른 교육자금을 넉넉하게 마련해놓기란 쉽지 않다.

이러다보니 각 가정의 학자금 대출규모는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은 제2금융권이나 심지어 사채까지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학업보

다는 부채를 갚기 위한 단순 아르바이트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고, 대출을 갚지 못해 취업도 하기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교육자금, 특히 대학교 교육자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하며, 자녀가 출생하면서부터 일정 금액을 적립해 자녀 몫으로 쟁겨놓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이라면 어린이 전용 펀드에 자녀 명의로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볼만 하다. 어린이 전용 펀드는 교육자금 마련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와 함께 어린이 경제교실에 참여해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자녀가 초등학교이고 부모가 근로자라면 장기주택마련펀드

에 가입해 교육자금 마련과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받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미 자녀가 대학교에 들어간 상태에서 등록금 마련이 힘들다면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정부에서는 '부모마음 학자금대출제도'라는 공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출금리는 연 6.59%, 상환기간은 20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만약을 위해 상환기간은 최대로 설정하고, 자녀가 대학교를 다니는 기간에는 부모가 이자를 대신 내주다가 자녀가 취업한 이후에 원금을 자녀에게 갚게 한다던 큰 무리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을 것이다.

(TNV 어드바이저 FP팀장)

## 미국發 세계증시 폭락 오나

### 美 GDP 성장을 하향 조정에

### 中·日 등 아시아 증시 연쇄 하락

중국증시가 반등 하루만에 또다시 급락세를 보이는 등, 지난달 27일 중국증시의 9% 가까이 폭락으로 시작된 세계 증시 연쇄 폭락의 여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8일 미국 뉴욕증시가 다소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급한 불은 꺼졌지만, 유럽 아시아권 증시에서는 여전히 급락세가 지속되는 등 전세계 금융시장이 쉽게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1일 중국 상하이 증시에서 상하이 종합지수는 이날 다시한번 급락, 전날보다 2.91% 하락한 2797.19로 장을 마감했다. 세계 증시 폭락의 진원지인 중국증시는 전날 급반등하며 한숨을 돌리는 듯 했으나 이날 다시 하락하며 추가하락 우려를 낳겼다. 이날 중국증시는 한때 4%가 넘는 폭락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일본 도쿄증시 닛케이 평균 지수 전날보다 0.86% 하락한 17453.51을 기록했다. 닛케이 평균은 이날 한때 2% 가까이 급락했으나 장 막판 다소 반등했다. 이외

대만 홍콩증시가 각각 급락하는 등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아시아 증시 급락은 이날 중국 증시가 다시 급락세를 보이는데다,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이 불거져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날 미국 증시에서 우량주 위주의 다우평균은 벤 버넬키 FRB(연방준비제도 이사회·미국의 중앙은행) 의장이 미국 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 힘입어 다소(0.43%) 상승세를 탔다.

그러나 이날 미국 상무부가 미국의 작년 4분기(10~12월) GDP 성장을 수정치가 연율 2.2%로, 잠정치인 3.5%에서 대폭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다는 사실이 세계 증시에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했다.

아시아권에서는 미국의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됐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미국의 경기 하락으로 미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이 둔화될 것을 우려, 수출주 중심으로 주가가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또 중국의 주가가 쉽게 안정되지 않으면서 국제 환율도 예측하기 힘들어졌다는 전망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비정규직 조기 사망 위험 정규직보다 3배이상 높다

### 보사研, 30세이상 1만명 조사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에 비해 조기 사망할 위험이 3배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과 교육수준 등에 따라 사망률 격차가 3배 안팎으로 벌어지는 등 생활의 질과 수준이 수명에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일 1998년과 2001년 실시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검진조사사를 받았던 30세 이상 연령층 1만 137명을 대상으로 추적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인의 사망과 질병, 의료이용의 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추적조사 기간인 1인당 평균 5.66년이었다.

이에 따르면 30~64세 연령층에 대한 조사에서 정규직 사망률을 1로 잡았을 때 비정규직은 3.11이나 됐다. 소득별로는 3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사망률을 1로 했을 때 200만~299만원 소득자는 1.52, 100만원~199만원은 1.9, 100만원 미만은 2.62로 소득이 낮을수록 사망률이 높았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땅값 변동률 조사 '부실'

### "감정평가사 3명중 1명 꼴 오류" 지적

건설교통부가 매달 발표하는 지가(地價)변동률 통계 작성 과정에서 감정평가사들의 현장조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평가됐다.

감정평가사들이 표본지 조사와 평가를 위해 현장에 체류하는 시간은 1필지당 평균 0.06일(약 90분)에 불과했으며, 감정평가사 3명중 1명은 평가자료 오류를 지적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가변동률 통계는 개발부담금과 매수가격, 보상액 산정, 개발사업 비용부담의 사후조정, 재건축 임대주택의 부속토지 가격산정 등 업무에 이용되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와 직결된다.

통계청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학회의 '전국 지가변동률 조사통계 품질진단 용역 보고서'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지가변동률 통계관련 현장조사 및 평가에 투입된 감정평가사(671명)중 설문응답자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감정평가사들은 한달에 1인당 평균 64.2필지를 조사하며, 현장조사에는 평균 3.88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지 1필지를 조사하는데 현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평균 0.06일인 셈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국민주택기금 썼다”

### 저소득층 대출자 절반에 불과

### 나머지는 중산층 등에 흘러가

서민과 근로자의 내집 및 전세자금 마련 등 주거안정을 위해 운용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자금이 당초 정책대상과 다른 곳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국민주택기금 주요 사업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기금대출을 받은 한 은행의 2005년 기금 대출자료를 표본으로 대출자의 소득 상황을 조사, 평가한 결과 전체 주택구입 대출자의 절반에 가까운 46.1%가 최저소득층인 소득 10분위중 1, 2분위에 해당했다.

소득 1분위는 지난 2005년 기준 월 평균소득 84만원 선, 2분위 역시 월 평균소득이 148만원선인 계층으로 정부 정책구도상 영세민 전세나 국민임대주택 공급대상이다.

정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 등 지원을 통한 주거복지 제고를 도모하는 계층은 '중산화 가능계층'으로 분류되는 5~6분위 계층으로, 월 평균소득이 각각 266만원, 306만원선인 계층이지만 전체 대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 8.1%, 3.8%에 불과했다.

예산정책처는 "소득 1분위의 경우 첫 직장에 다니며 부모의 도움으로 집을 사는 근로자가 있기는 하지만 상당수의 최저 소득층 부담이 큰 주택구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최저기준 미달가구인 소득 1분위가 전체 대출자의 19.7%를 차지하는 데 대해 정부는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출자 개인이 아닌 대출자가 속한 가구주의 소득으로 분석하면 더욱 문제가 심각해져 기금의 대출대상이 아닌 중산층 이상 계층, 즉 소득 7분위와 8분위 계층으로 속한 대출자가 조사대상 대출자의 각각 21.6%, 6.7%에 달해 역시 5, 6분위 계층을 주 정책대상으로 했던 정부의 구상에서 빚나갔다. /연합뉴스

## 대보름 부럼 사세

### 음력 정월 대보름(4일)을 앞둔 1일 광주 양동시장을 찾은 고객들이 밤, 대추, 호두, 땅콩 등 부럼을 사고 있다.

대보름날 새벽에 부럼을 깨물어 먹으면 한 해 동안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다. /워킹기자 jrwi@kwangju.co.kr

## 복권발행·판매액 감소 추세

### 2005년, 전년보다 9.5%, 18% 줄어

우리나라 복권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조세연구원의 재정포럼 2월호에 따르면 2005년 복권발행액은 4조2천71억원으로 전년보다 9.5% 감소했고 판매액도 2조5천438

억원에 머물러 전년에 비해 17.8% 줄었다.

복권발행액은 2000년 9천761억원에서 2001년 1조2천319억원, 2002년 1조7천625억원, 2003년 5조2천889억원 등으로 증가하다가 2004년 4조6천500억원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고 있다. 복권판매액도 2000년 5천74억원에서 2003년 4조2천342억원까지 꾸준히 증가했지만 2004년 3조4천595억원으로 떨어진 이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공공기관 신규 채용

### 10명중 6명 “이공계”

### 작년 84곳 3,824명

이공계 전공자 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주요 공기업 및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신입직원 10명 중 6명을 이공계 출신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부는 이공계 전공자 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88개 기관 중에서 지난해 정규직원을 새로 채용한 84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공계 채용실적을 점검한 결과, 이 기관들이 채용한 6천165명 중 이공계 출신이 3천824명으로 62.0%

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기관별 이공계 전공자 채용비율은 평균 61.1%로 당초 목표비율 57.4%보다 3.7%포인트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기부는 정규직원 300명 이상인 한국전력, 한국철도공사 등 88개 주요 공기업 및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이공계 전공자 채용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해당기관들에 대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신규 채용인원 중 이공계 전공자 평균비율의 5% 수준을 2009년까지 매년 늘려가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말 88개 기관들의 이공계 전공자 비율은 2005년 말보다 0.1%포인트 상승한 53.9%로 나타났다. 과기부는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호남유흥유	사무직 경리사원 모집	고졸/경력1년	1400~1600	03/10	062-374-9769
☎삼성화학주	영업부 관리/지원 직원채용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3/10	062-951-8001
☎유동원산업	토목공무 및 총무/경리 사원모집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3/10	062-512-2284
☎토탈유흥	캐드가능자/회계/A/S 유흥보수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3/10	062-671-5419
☎출천건설	토목/시공관리/건축설계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0	061-723-1766
☎이인텔레서비스	LG텔레콤 고객센터 정규직 상담사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3/12	062-601-7203
☎미용그룹세종	미용실 홍보 담당자 모집	대졸/경력2년	1800~2000	03/15	02-512-1088
☎리프리스치	뉴스리프 취재기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3/15	062-263-1114
☎위치스	모바일디자인 및 인화직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5	062-225-1560
☎미래시스템	온라인 광고 (오버슈어/구글/세이버) 담당 사원모집	초대졸/경력2년	2000~2200	03/16	010-9885-1111
☎웹테크	이마트 화장품 파나소닉 기전판매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6	017-608-5322
☎한주식품	학교 급식소 제품 홍보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000~1200	03/16	062-941-4853
EK Productions Inc.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6	062-513-5050
☎비이오닉스주	품질시스템 및 품질관리(QC) 요원모집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3/16	062-973-8811

(광주직접콜라 512-6210 제공)

## 초고속인터넷업체 28억 과징금

### 통신위, KT 등 3사 이용자 이익 차별

KT와 하나로텔레콤, LG와이콤 등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2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는 1일 KT, 하나로텔레콤, LG와이콤, 온세통신, LG데이콤 등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해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한 점을 인정,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 중 KT, 하나로텔레콤 및 LG와이콤 3개사에 대해서는 총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통신위에 따르면 KT, 하나로텔레콤, LG와이콤 3개사는 이 용요금·가입설치비·모뎀임대료 등을 차별적으로 면제하거나 타사 전환가입자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대납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한 행위가 적발됐다. /연합뉴스